

안디옥 이야기

우라 나라 역사와 세계사 공부에 도움이 될까하여 거금을 들여 맹공이 서당과 먼나라 이웃나라 만화책 시리즈를 사놓았습니다. 친구들도 간간히 들여다 보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훨씬 더 좋아 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나이가 40이 넘어도 여전히 만화책이 좋네요.



예전에도 간혹 맹공이 서당을 읽었는데, 너무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서당아이들이 공부 안하려고 갖은 꾀를 쓰며 훈장님을 놀려먹는 재미를 함께 공감하며, 그것이 당연한 불변의 진리로 읽었었는데... 이젠 이 책이 다르게 해석돼요. 어찌된 일인지 맹공 서당의 훈장님이 가엽기도 하고, 날마다 속이 터질텐데도 담뱃대로 머리를 때려가며 끌어다 공부를 시키시는 그 열정에 존경심이 우려납니다. ㅠ ㅠ

저희와 함께 사는 친구들은 현화를 빼고 아직 공부에 흥미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세상엔 재밌고 신나는 일이 너무 많고 공부하라고 갖은 험박과 회유를 일삼는 학교 선생님들과 저희(기숙사 이모들)은 점점 이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여느 가정처럼, 저희도 휴대전화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친구들이 열어가는 세계는 위험하고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매일 매일 이 땅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훔치고 있는 대중문화의 힘은 너무나 막강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이모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경교 줄어들지 않는 더 커져만 가는 허영심으로, 경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이들 탈북 청소년들을 수렁에서 건질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리고 젊기 때문에 거칠 수 밖에 없는 실수와 반항에도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 받아 인내 하며 사랑하도록 저와 김정심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재작년까지 저희 교회 전임이었던 토비와, 올해 해외 단기를 다녀오고 많이 성장한 드보라의 결혼식이 이번 달에 있습니다. 참석 할 순 없지만, 예쁘게 사랑하고 예쁘게 성장한 친구들도 인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래는 단기를 나가기 전, 드보라의 간증입니다.

저는 2010년에 ATA에 왔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사실은 심적, 육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시간이었어요 세상의 허영도 붙잡고 싶고 신앙도 붙들고 싶은 모순덩어리였습니다. 이전의 굳건했던 가치관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삶의 끈이 끊어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틀린 거 같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2012년, 낙심한 저는 고향 닝보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 말씀도 기도도 모임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도 저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 도박과 환락의 삶에서 조금씩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겸손이나 순종 같은 것은 제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가지를 훈련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아침마다 캠퍼스 식당에 옹기종기 앉아 말씀을 먼저 대면하는 친구들에게선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 리나는 최근 집요하게 자기에게 보증을 팔려고 전화하는 사람에게, 이미 보장이 훨씬 더 좋은 보증을 들어냈다고 했답니다. 머냐고 묻자 하늘나라 보험에 대해 얘기해 줬고, 친구들은 들으면서 재밌다고 좋아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암송을 더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 같다고 했답니다.

저는 2월에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오려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최대 수확의 시기, 성탄절 동안, 이번에도 복음을 들을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심겨지고 성장하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